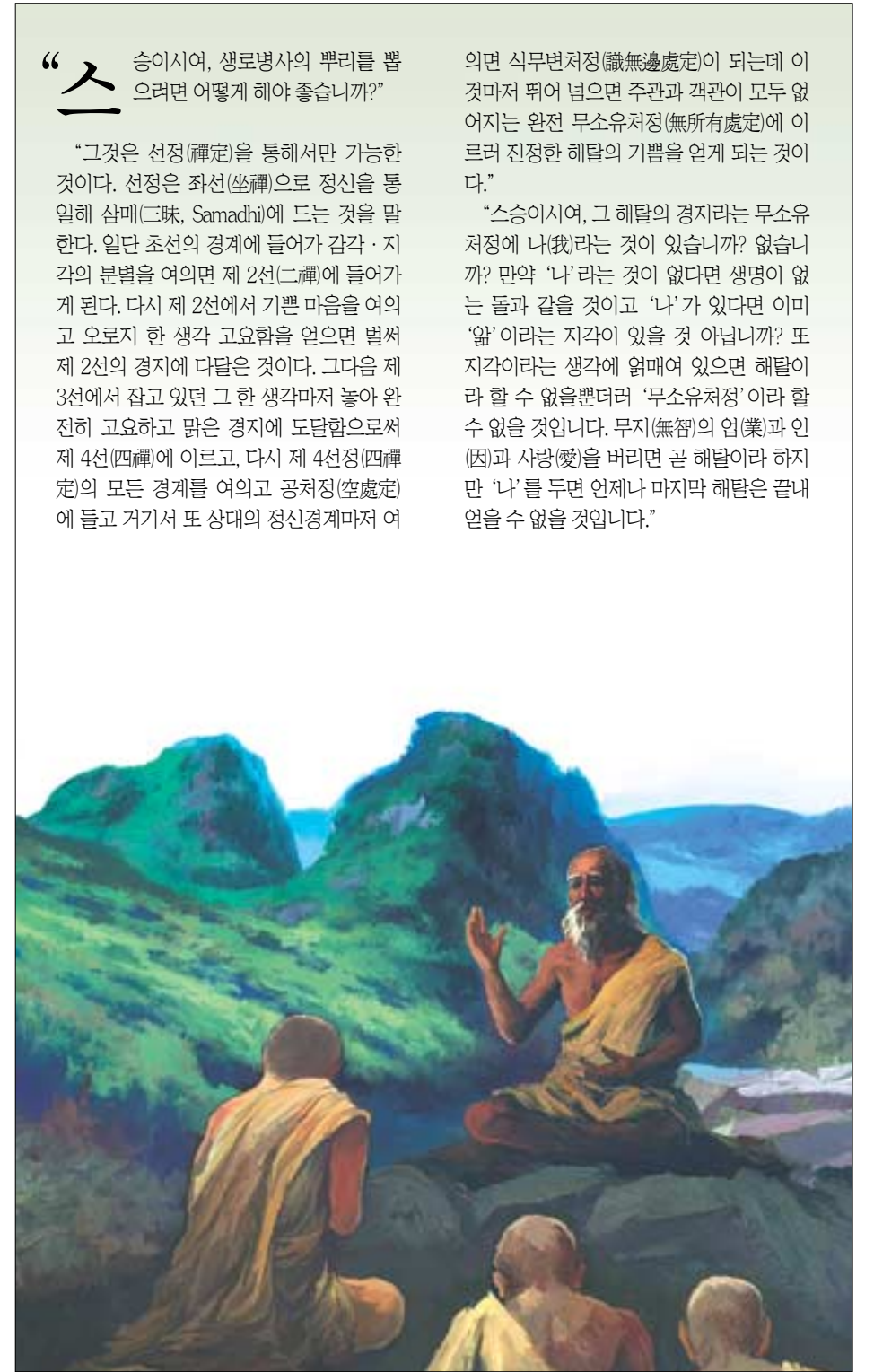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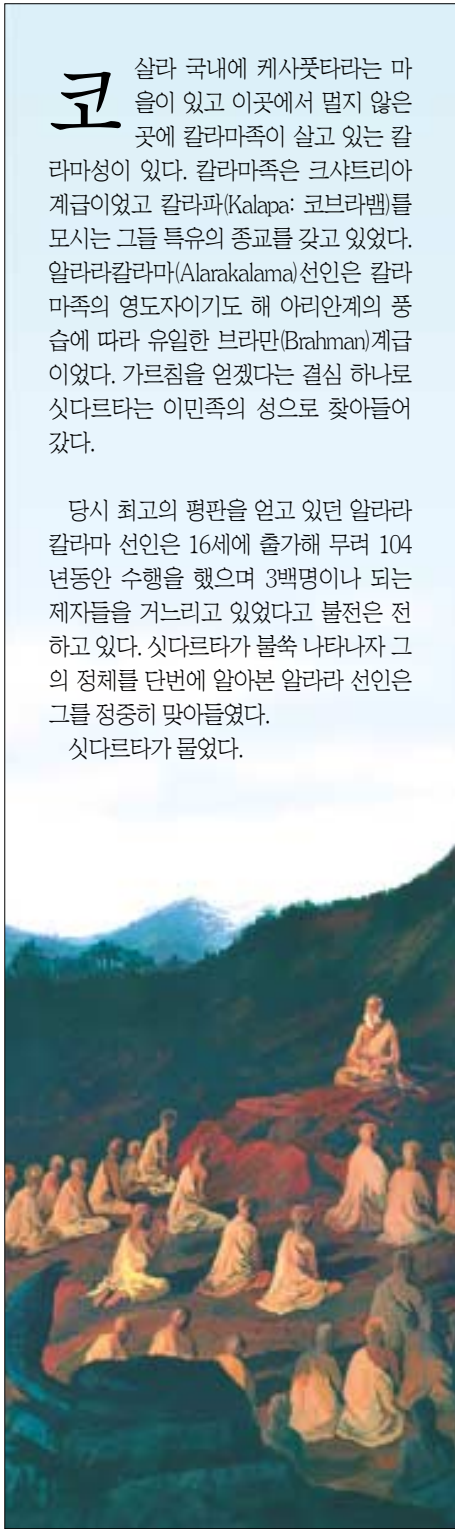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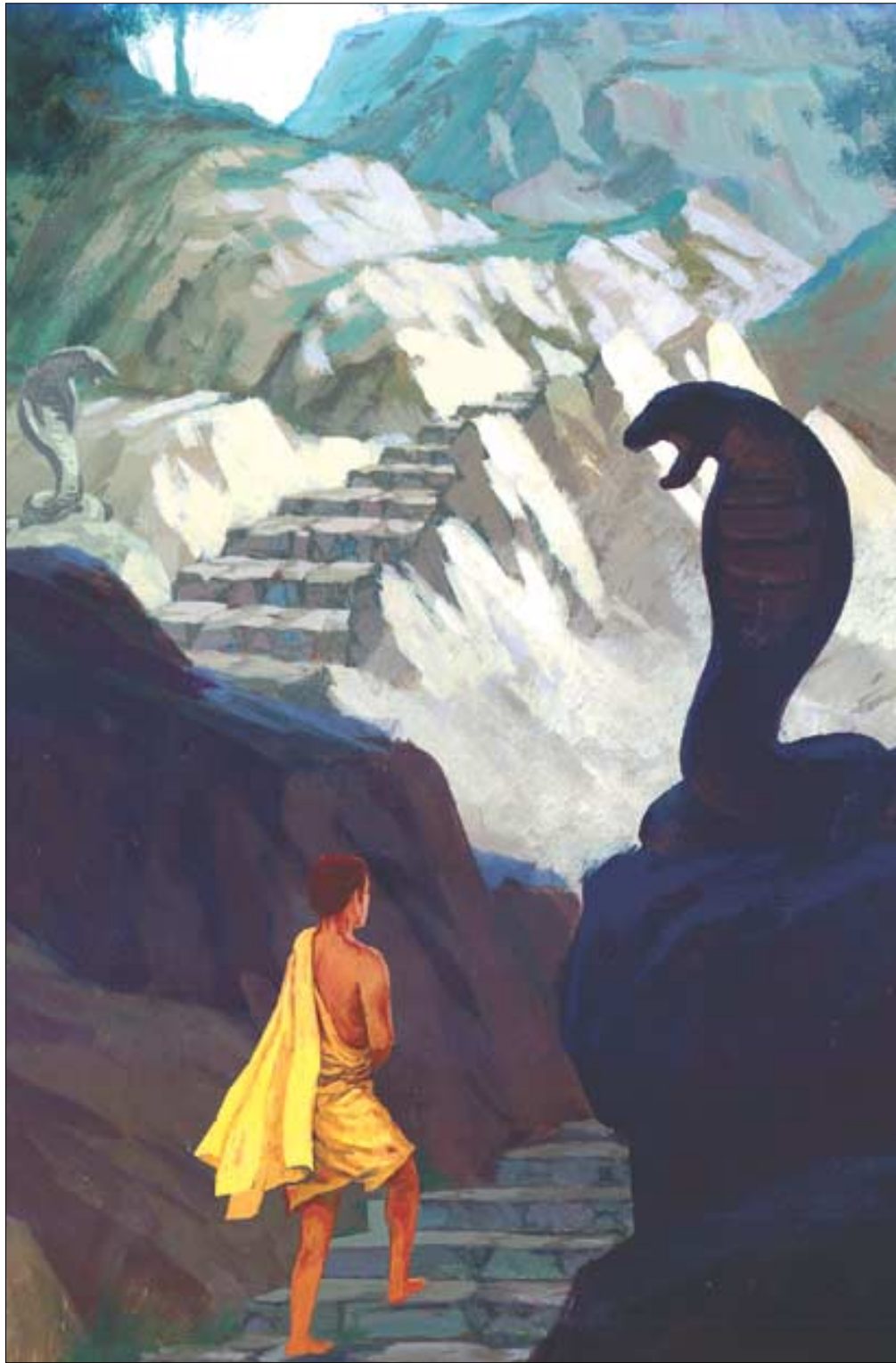


#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 제11화 스승을 찾아서



**코** 살라 국내에 케사푸타라는 마을이 있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칼라마족이 살고 있는 칼라마성이 있다. 칼라마족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었고 칼라파(Kalapa: 코브라뱀)를 모시는 그들 특유의 종교를 갖고 있었다. 알라라칼라마(Alarakalamal)선인은 칼라마족의 영도자이기도 해 아리안계의 풍습에 따라 유일한 브라만(Brahman)계급이었다. 가르침을 얻겠다는 결심 하나로 싯다르타는 이민족의 성으로 찾아들어 갔다.

당시 최고의 평판을 얻고 있던 알라라칼라마 선인은 16세에 출가해 무려 104년동안 수행을 했으며 3백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불전은 전하고 있다. 싯다르타가 불속 나타나자 그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본 알라라 선인은 그를 정중히 맞아들였다. 싯다르타가 물었다.

**“스** 승이시여, 생로병사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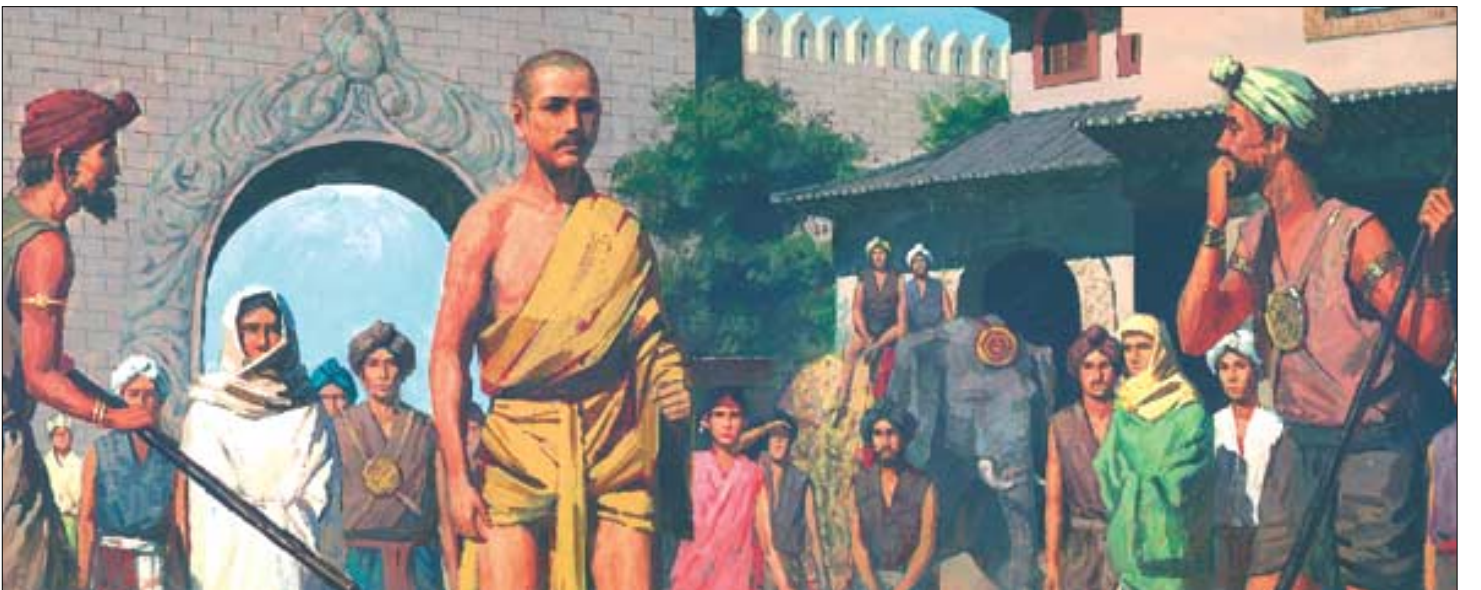
“그것은 선정(禪定)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선정은 좌선(坐禪)으로 정신을 통일해 삼매(三昧, Samadhi)에 드는 것을 말한다. 일단 초선의 경계에 들어가 감각·지각의 분별을 여의면 제 2선(二禪)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제 2선에서 기쁜 마음을 여의고 오로지 한 생각 고요함을 얻으면 벌써 제 2선의 경지에 다달은 것이다. 그다음 제 3선에서 잡고 있던 그 한 생각마저 놓아 완전히 고요하고 맑은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제 4선(四禪)에 이르고, 다시 제 4선정(四禪定)의 모든 경계를 여의고 공처정(空處定)에 들고 거기서 또 상대의 정신경계마저 여

의면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이 되는데 이것마저 뛰어 넘으면 주관과 객관이 모두 없어지는 완전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에 이르러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스승이시여, 그 해탈의 경지라는 무소유처정에 나(我)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돌과 같을 것이고 '나'가 있다면 이미 '아'이라는 지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지각이라는 생각에 얽매어 있으면 해탈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무소유처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지(無智)의 업(業)과 인(因)과 사랑(愛)을 버리면 곧 해탈이라 하지 만 '나'를 두면 언제나 마지막 해탈은 끝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알** 라라칼라마 선인 곁을 떠나는 싯다르타는 그 길로 마가다 국의 도성(都城)인 라즈기르(Rajgir, 王舍城)로 향했다. 우타카 라마푸타(Uddaka Ramaputta) 선인이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엔 쿠샤그라푸라(Kusagrpral)로 불리었던 곳이다. 쿠샤그라푸라성이 가까워지자 과연 강국의 수도답게 수많은 장사치들이 무리를 이루어 분주히 길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대 마가다(Magadha)국의 수도인 라즈기르(본저자는 한문역의 왕사성대신 현재의 지명을 그대로 쓰기로 함)는 옛 기록대로 32개의 큰 문과 64개의 작은 문이 있는 거성으로 바이바라(Vaibhara), 라트나(Ratna), 차타(Chhatha), 쏘나(Sona), 우다

야(Udayal) 등의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다. “혹시 이분이 소문만 들어왔던 사카족의 왕자님이 아니실까?” 사람들은 서로 간에 눈을 맞추며 상인들이 들려주던 그 유명한 소문의 주인공이 틀림없을 거라고 수군거리며 싯다르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때마침 성루에 올라 바람을 쐬고 있던 빬비사라 왕은 궁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하를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소문에 들자하니 옛날 아시타 선인께서 예언하시길 저 사카족의 왕자가 장차 왕위에 오르지만 하면 반드시 차크라바르틴(Cakra-Varti raja,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 했다 하옵니다.”



**“흠,** 사카족의 나라라면 카필라바스투인데 겨우 코살라국의 속국신세로서 백성도 별로 없는 행편에 어떻게 우리 마가다 같은 대국을 침략할 수가 있는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의심은 생각할수록 더 심해져 갔다. 만약 저 사카족의 왕자가 정말 전륜성왕이 되어 자기들의 종주국인 코살라국을 정복한다면 그들은 단번에 마가다와 필적할 만한 세력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아시타 선인의 예언대로 전 인도를 통일하여 대 제국을 세우며 차크라바르틴의 왕좌에 군림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차크라바르틴의 정복전쟁에 마가국이라고 빠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니 저 사문의 행동엔 의심해 볼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우선 정말로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면 어느 깊은 숲속이나 혹은 자기 나라와 가까운 설산으로 갈 일이지 어째서 수도는 아니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빬비사라 라자(Raja)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며 무엇인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떨었다.

